

조경현상설계지침과 출품작의 내용관계 비교[†]

- 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기반시설공모 입상작을 중심으로 -

홍윤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A Comparative Study of Landscape Design Competitions' Guidelines and Entry Plans

- The Case of Winning Design Proposals for Urban Infrastructure of the Hangdong Bogeumjari Housing District -

Hong, Youn-So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of landscape design competitions and qualitative enhancement of design quality by mutually comparing the guidelines and entry plans. The case targeted for the current study is landscape design proposals for the Seoul Hangdong Bogeumjari Housing District recently launched within a greenbelt zone in the outskirts of Seoul. The study examine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e design guidelines and the contents of the three winning design proposals with a focus on whether or not they have reflected the guidelines. It was observed that many provisions of the principles and conceptual guidelines which serve as clues to the designs for winning design proposals show the direction in which the project is to be headed.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provisions and the way they are expressed are intertwined, while, at the same time, the guidelines were not organized or developed in an orderly manner. Such a structural pattern of the guidelines is linked to the aspects of the contents of the winning design proposals as described in the following. It is observed that guidelines related to the direction in which the design to be headed are so regulatory and lengthy that they are overly standardized. This could make it difficult to read the possibility of the alternative shifts in the winning design proposals. At the same time, the attributes of winning design proposals themselves, which require observable discriminatory superiority, could serve as a factor causing excess of meanings by jumping on the bandwagon of naming. On the contrary, where autonomy of design is guaranteed or no guidelines are provided for the winning design proposals, discriminatory differences were observed, thereby making it easy to measure them. This illustrates well that guidelines and structural format should be provided through a separate undertaking that has taken into careful consideration environmental traits of the site in question, objectives required and so forth.

Key Words: Principles & Conceptual Phase, Programming & Structural Phase, Detailed & Spatial Phase

Corresponding author: Youn-Soon H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song 456-749, Korea, Tel.: +82-31-670-5216, E-mail: yshong@hkn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상설계제도의 운영 개선과 설계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침과 출력작의 내용관계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연구대상 환경은 서울 외곽 그린벨트에서 최근 이루어진 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현상설계로서, 그 설계지침과 이에 상응되는 입상작 3점의 내용관계를 비판적 안목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설계의 단초를 형성하는 원론 및 개념화 단계지침에서 작품의 전개방향을 미리 규정하는 측면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지침구성에 있어서도 내용적 가이드라인과 표현에 관한 지침이 비위계적으로 혼재하고 있었다. 지침의 이러한 구조양상은 응모안의 내용형식과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즉, 설계전개방향과 관련된 지침이 지나치게 규정적이고 그 분량이 많아, 설계관점이 전체적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동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설계 출력작에서 대안적 변화의 가능성을 읽기 어려운 까닭이 된다. 아울러 작품의 변별적 우수성을 드러내야 하는 현상설계의 속성상, 네이밍(naming)에 편승케 하여 의미의 과잉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설계의 자율성이 보장되거나 심지어 당해 지침이 결여된 상태에서 응모안의 내용적 차별성과 변별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상설계 발주 당시 대상지의 여건과 환경특성, 그리고 요구되는 목표 등을 보다 면밀하게 감안하는 별도의 노력을 통해 지침의 내용과 구조형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주제어: 원론 및 개념화 단계, 프로그램과 골격형성단계, 세부공간계획단계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현상설계제도는 발주 시 야기될 수 있는 불공정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질적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해당 작품과 분야발전 에 기여토록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라빌레트와 다운스뷰파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조경분야 역시 이 방식을 통해 동시대적 이슈에 천착해 왔을 뿐만 아니라, 기 시행된 현상 안을 연역적 또는 귀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술적·학문적 발전을 촉진시켜왔다¹⁾. 반면,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상설계에 대한 우려와 비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현상에의 당선을 위해 동원되는 의미와 표현상의 과잉문제, 제도시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의 문제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 설계안 자체만을 해석해 왔던 이 때까지의 연구경향에서 탈피하여 현상설계지침과 이에 상응하는 출력작의 내용관계를 건주어 보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대상지의 고유한 여건에 천착한 사업 대상지별 현상설계지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의 식으로부터 발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 의해 본 연구는 작금의 현상설계지침내용 및 구성상에 내재된 문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지침이라는 조건 하에 작성된 설계안들의 경향과 표현형식을 비판적으로 조감하며, 이를 토대로 현상설계 관련제도개선에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2.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주거환경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조경현상설계의 사례를 다룬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독특하면서도 다원적인 특징을 갖는다. 즉,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저렴한 임대주택과 자가 보유주택을 병행 추진하는 이 사업은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져오던 이전까지의 주택정책을 수요자 위주로 전환케 하는 사회적 특성을 보유한다. 또한 이 사업은 수도권 외곽 신도시사업처럼 도시외연을 확장시켜 온 교외화 현상(urban sprawl)의 극복을 위한 충진식(infill)의 도시개발관점에서 주목되기도 한다(최인호 등, 2010).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많은 경우,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추진되는 까닭에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독특한 환경적 특성이 발견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대상 환경은 최근인 2010년 8월 SH공사에 의해 현상설계가 추진된 구로구 향동지구이다. 서울 외곽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위치하는 이 대상지에는 상기한 사회적·문화적·환경적 특징이 모두 투영되어 있다.

3. 연구방법과 진행과정

향동지구 조경현상설계의 경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11개의 안이 응모한 결과, (주)어리연 조경디자인의 안(이하 A안)이 최우수작으로, 조경설계 서안(주)의 안(이하 B안)이 우수작으로, 안스디자인 조경기술사사무소의 안(이하 C안)이 가작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는 11개안 모두를 포괄하기 어려워 본 사업의 현상설계지침과 상기 입상작 3점의 설계계획서·패널·제출도면 등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조경현상설계에 내재된 행정적·기

술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조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을 취한다. 즉, 이후 전개될 2장에서 연구대상지인 향동지구의 입지여건과 관련계획, 그리고 현상설계의 개요를 고찰하는 한편, 현상설계지침의 내용과 구성을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관련성 검토를 위한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3장에서는 준비된 구조적 틀을 바탕으로 입상작의 설계전략과 내용을 유형화하고 공통적 또는 차별적 아이디어로 분류하면서 지침과 설계안의 상호 관계를 분석토록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제도와 설계행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II. 현상설계의 대상과 지침내용분석

1. 대상지여건과 상위계획

본 지구는 서울도심으로부터 서남측 방향으로 약 17km 이격된 구로구 향동 일원 664천m²로서, 서울과 부천·광명의 경계부를 이룬다.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천왕역), 서울외곽순환도로(시흥 I.C), 경인국도(46호선) 및 계수대로(남부순환도로-부천시계간 도로로서 금년 완공예정) 등으로 연결되어 광역 접근성이 양호하며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500m거리에 위치한다. 이 지역 주변으로 범박지구와 천왕지구, 부천옥길지구(2차 보금자리지구)가 개발 중이어서 개발압력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구 북동측에는 서울 푸른수목원이, 동측에는 천왕 도시자연공원이 각각 연결하고 있다.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중 주택건설용지는 약 46.5%이며, 건설예정주택규모는 보금자리주택 3,300호를 포함하여 약 4,600호에 이른다. 반면, 공공시설용지 중 공원녹지는 약 27.8%로서, 이중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약 12.1%인 80.7천m²가 훼손지복구계획²⁾로 구성되어 있다.

향동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상위계획 상 개발개념은 '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복합단지 건설'로서 세 측면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주변 공원·녹지와 연계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이라는 목표는 인근 수목원 및 도시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과 임상 양호지를 녹지축 또는 그린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반면, '보행자 중심의 활력 넘치는 거리 조성'의 목표는 중심 녹지축을 거리공원 형태로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성화하며, 지구 내 역곡천을 정비하여 지구 외 푸른수목원과 어우러진 수변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조화로운 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과 함께 경관계획을 통한 조화로운 단지를 겨냥하고 있다(표 1 참조).

2. 현상설계의 범위와 지침내용

현상설계의 대상은 전체지구 내 공원, 녹지 및 가로수가 망라되나, 실제적으로는 지구중심부에 대상(帶狀)의 형태로 연속되는 평지형 1호 근린공원과 산지형의 3호 근린공원, 역곡천 동측의 2호 수변공원과 서쪽의 1호 수변공원들이 주목된다(그림 1 참조). 한편, 현상설계지침은 목표와 기본방향, 일반지침, 장소별 지침의 위계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다. 설계목표로서 친환경 전원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미래형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세 측면을 설정함으로써 전술한 상위계획의 맥락을 잇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이들 목표 아래 위계적으로 구성되는 7가지의 기본방향과 10가지의 일반지침, 근린 및 수변공원 각각의 장소별 지침, 그리고 이들 장소 내 특별히 요구되는 훼손지 복구에의 지침들(서울특별시 SH공사, 2009)을 기호화하며 정리한 것으로, 주제어구와 수식어구로 구분되는 내용 중 핵심사항을 굵은 글씨체로 강조함으로써 요점을 명료화하도록 하였다.

3. 지침의 구성과 내용구조 분석

표 2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지침내용은 그 성격과 심도의 측면에서 원론 및 개념화 단계, 프로그램과 골격형성단계, 세부공간계획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원론 및 개념화 단계지침은 목표 지향적(goal orientated)이며 선언적인 까닭에, 구체적이기 보다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경향을 띤다. 반면, 이후 단계인 프로그램 및 골격형성단계지침은 활동 및 공간프로그램(activity & space program)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공원 전체의 구조적 골격과 결부되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보다 진전된 세부공간계획단계지침은 즉지적(site specific)이어서 물리적, 형태적으로 비교적 구체성을 갖는다. 한편, 이러한 지침내용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상호 연계되고 조직화되는데, 그 내용적 관련성 역시 경중을 따져 구분해볼 수 있다. 현상설계지침내용을 핵심 키워드 위주로 나열하면서 상호간의 관련성을 구조화하면 그림 2와 같다. 현상설계지침의 이러한 구조체계는 다음의 측면들을 드러낸다.

우선, 규범적 내용을 천명하는 원론 및 개념화 단계지침의 비중이 큰 까닭에 상위계획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표 1. 상위계획 상 개발개념과 개발방향

개발개념	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복합단지 건설	
개발방향	쾌적한 단지	역곡천과 천왕도시자연공원, 서울푸른수목원을 블루-그린 네트워크로 연계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복합용도 조성 및 근린·서비스 등 편리한 시설 구축
	조화로운 단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사회적 통합 및 생활공간 기능 분담

자료: 서울특별시 SH공사, 2009: 11



그림 1. 향동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주변상황과 중심계획대상

노정된다. 즉, 표 1의 상위계획상 개발방향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현상설계지침은 단지계획목표를 실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아울러 '활발한 이용(a3-1)'과 '이용 및 접근성 증대(a3-2)'와 같이 유사한 내용들이 동일위계 내에서 중복되는 측면, 그리고 설계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는 대다수의 내용들과 설계표현형식에 관한 지침(b8, b9, b10 등)이 혼재되는 문제도 발견된다. 또한 지침내용 간 상관성의 도식화에서 드러나듯, 지침의 위계구성상 일관성의 결여와 특정내용에의 편중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현상설계 출품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것이다.

III. 입상안별 설계전략과 지침과의 관계성 분석

1. 원론 및 개념화 단계의 내용

당선작 A안의 설계설명서((주)어린이 조경디자인, 2010) 2쪽 프롤로그는 별도의 색채로 키워드를 강조하며 계획에 임하는 설계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즉, '다공질의 땅(porous land)', '생산과 삶', '문화화된 자연(cultivated Nature)',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것', '도시와 자연', '생태적인 것과 사람들의 활동육구' 등이 그것이며, 이들은 응모안의 표제인 "함께 하는 자리"로 수렴됨으로써 상충성 조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논지는 3쪽 대상지 해석에서 더욱 확장되어 경작경관(cultivated landscape)은 인공적이나 가장 자연에 가까운 '문화화된 자연'으로, 향동지역은 도시적 기능과 정서가 함께 하고, 도시적 딱딱함과 자연적인 부드러움이 함께 하는 '가상자리 경관(fringe landscape)'으로, 그리고 띄 모양으로 펼쳐진 공원녹지는 접근 가능성이 우수한 '선형경관(linear landscape)'으로 이해하는 측면을 보여준다(그림 3 참조).

우수작 B의 설계설명서(조경설계 서안(주), 2010) 2쪽은 '큰 물이 들면 배가 닿던 곳 향동(航洞)'의 지역성으로부터 개념을

표 2. 현상설계지침의 위계구성과 세부내용

a: 목표(3)와 기본방향(7)		b: 일반지침(10)	c: 장소별 지침	
a1 자연자원을 고려한 친환경 전원도시	a1-1 기존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고려한 생태적 식재계획을 통해 지구 북동측 푸른수목원과 남서측의 암상 양호지를 녹지축으로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	b1 기존의 지형이나 식생 등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양호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	c1 수변공원	c1-1 수변공원은 주변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생물서식의 모습이 느껴지는 하천경관이 되도록 계획
	a1-2 대상지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시각축 및 통경축을 설정한 경관계획	b2 훼손지 복구계획 대상지(64,408㎡)에 대하여 복구계획 수립		c1-2 수변공간은 자연형 친수공간이 되도록 계획하며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구상하고 주변지역의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a2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적극 반영한 저탄소 녹색도시	a2-1 조경시설물, 포장재료, 특수구조물 등의 계획 시 자연친화적 소재를 도입하여 환경오염물질 방출에 대비	b3 계수대로변의 공원 및 녹지는 주거단지로의 소음과 공해에 대한 저감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	c2 근린공원	c1-3 자연성이 양호한 지역은 생물서식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수변으로의 안전하고 충분한 접근로를 확보하여 공공적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배려
	a2-2 하천 및 저류지, 우수배수로 등을 연계한 수순환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친수공간 계획	b4 하천(역곡천)변의 도로, 공원, 녹지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		c1-4 쾌적하고 다양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위한 휴식·여가공간으로 계획
a3 창의적 디자인의 미래형 커뮤니티	a3-1 지역적 맥락을 반영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지구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	b5 기존의 양호한 수림, 하천 등을 최대한 원형보존하여 주요 어메니티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자연친화적 설계를 지향	c3 훼손지 복구	c2-1 양호한 임야 및 GB환경평가 2등급 이상 지역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은 기존 자연자원 보존을 지향하며 현황과 조화되는 생태적 식재계획 수립
	a3-2 주변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역과 연계된 공간계획으로 이용 및 접근성 증대	b6 공원별, 녹지별, 가로별 주제를 부여하고 특화된 이미지를 구축하여 랜드마크 및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공간으로 계획		c2-2 생태적 복원에 우선점을 두고 계획되되, 시민들의 문화생활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a3-3 지구전체에 분산된 공원·녹지를 아우르는 통합디자인 계획 수립	b7 공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c2-3 생태적 복원에 우선점을 두고 계획되되, 시민들의 문화생활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b8 근린공원 또는 수변공원 내 적절한 위치에 공원관리사무소 1개소(연면적 최소 100㎡)를 계획		c3-1 훼손복구대상지 내 소하천의 기능과 선형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
		b9 지구 내 공원·녹지에 해당하는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만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경계 바깥부분에 대하여는 계획하지 않음		c3-2 자연성이 높은 식생구조 복원
		b10 특수구조물(보행고가 등)의 경우, 제시된 공사비 내에서 실현 가능 여부를 반드시 검토		c3-3 소생물의 서식공간이 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태공간으로 조성 - 개별종이 아닌 식물군집으로 설계 - 수직적 다양성 확보
				c3-4 자생수종으로의 유도 - 지속가능한 수림 및 자연스러운 생태공간으로 조성 - 생물종 다양성 증진 및 지역생태계 보전 - 주변 환경과 목표종의 서식에 적합한 비오둑 조성

자료: 서울특별시 SH공사, 2009: 12-17. 필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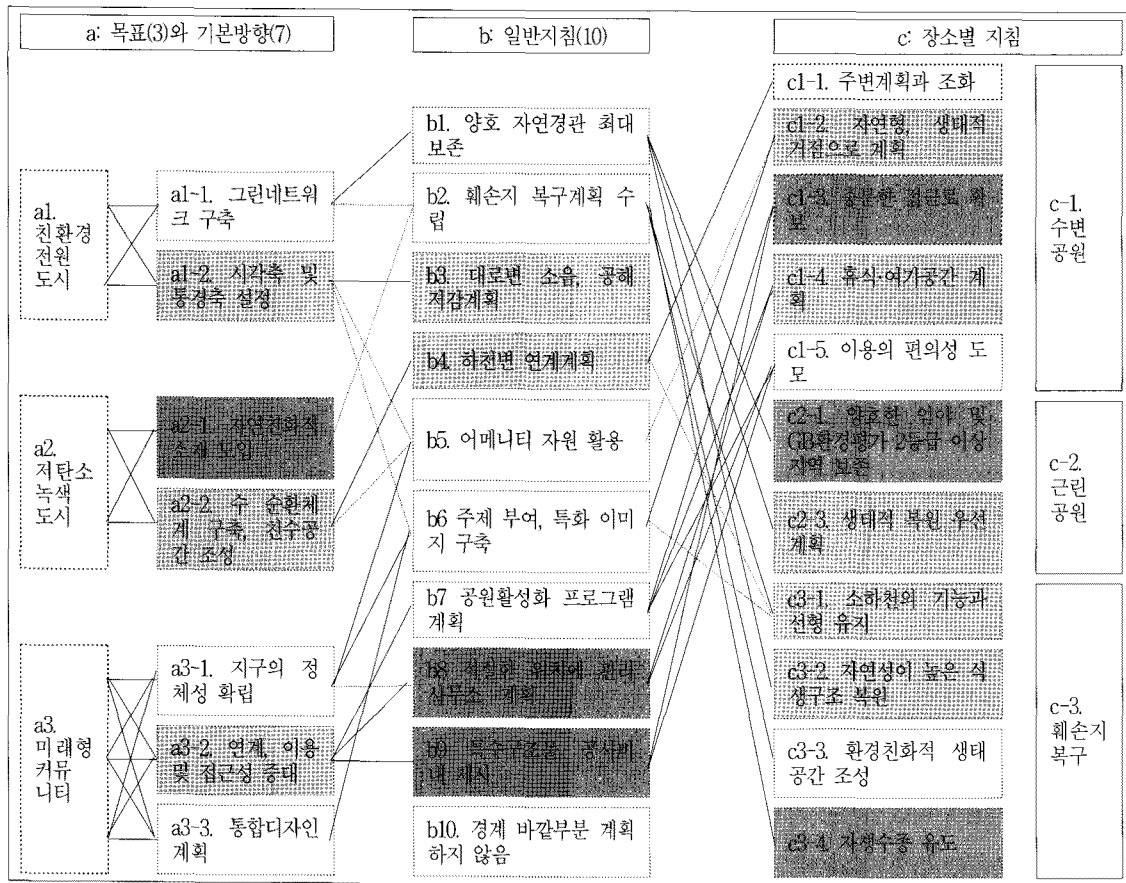


그림 2. 현상설계지침내용의 관계구조

범례: 원론 및 개념화단계 내용, 프로그램과 골격형상단계 내용, 세부 공간계획단계 내용,
 ————— 관련성 강, - - - - - 관련성 약

발전시키면서, 대규모 개발로 그 맥이 단절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지는 주변의 건강한 자연을 끌어들이고 연계하는 '녹색 숨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림 3 참조). 또한 4쪽 '대상지 바라보기'에서는 이곳의 미래상을 서울 환상축과 더불어 생태중심형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 지리적 측면에, 철길이나 농촌경관과 같은 땅의 고유한 모습을 재현하는 지형적 측면에, 물이 차면 배가 닿던 곳을 지칭하던 지명의 재현측면에 연결시키고 있다.

가작 C의 설계설명서(안스디자인 조경기술사사무소, 2010) 2쪽 프롤로그 내용 중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아름답게 승화시키고자 자연은 보존하고 지켜 나가며, 주변과 조화롭게 연계시키고, 향동에 새겨진 기억의 흔적은 가슴으로 새겨냅니다."의 표현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점에서 갈등하는 설계가의 고민을 드러낸다. 이 역시 B안과 유사하게 과거 배가 드나들던 대상지 역사에 기대하고 있으나, 녹지·물·사람이 모이고 퍼지고 흐르는 '초록호수(green lake)'를 표제로 한다(그림 3 참조). 한편, 이어지는 설계계획서 내용으로 초록호수는 과거의 기억을 담은 그릇, 삶의 터전으로서의 다양한 환경조성, 자연이 유기적

으로 연결되는 생태환경을 의미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상의 원론적이며 개념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보여준다. 물과 관련된 지명에서 과거의 기억을 유추하고 상정하면서 그 생태적 역할에 주목한 B, C안은 물론이고, 현 상황에 친착한 A안 역시 '다공질의 땅'의 표현이 보여주듯 물의 친환경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특징은 목표와 기본방향을 나타내는 지침내용 중 수순환체계 구축 및 친수공간 조성(a2-2), 일반지침내용 중 하천변 연계계획(b4), 훼손지 복구지침 중 소하천의 기능과 선형유지(c3-1) 등과 밀접히 관련됨을 보여준다. 한편, 대상지에 잔존하는 경작경관 역시 기억과 상징,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명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공통적 특질이 발견된다. 이러한 측면은 현상설계지침내용 중 양호 자연경관 최대보존(b1) 및 어메니티 자원 활용(b5)이라는 일반지침, 수변공원에 대한 자연형·생태적 거점으로서의 활용(c1-3) 등의 지침내용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지침의 안목을 충실히 따르는 개념화 단계의 인식구조는 공동주택단지인 생활환경계에 있어서도 녹색의 원형적 자연을 절대시하는 가치체계를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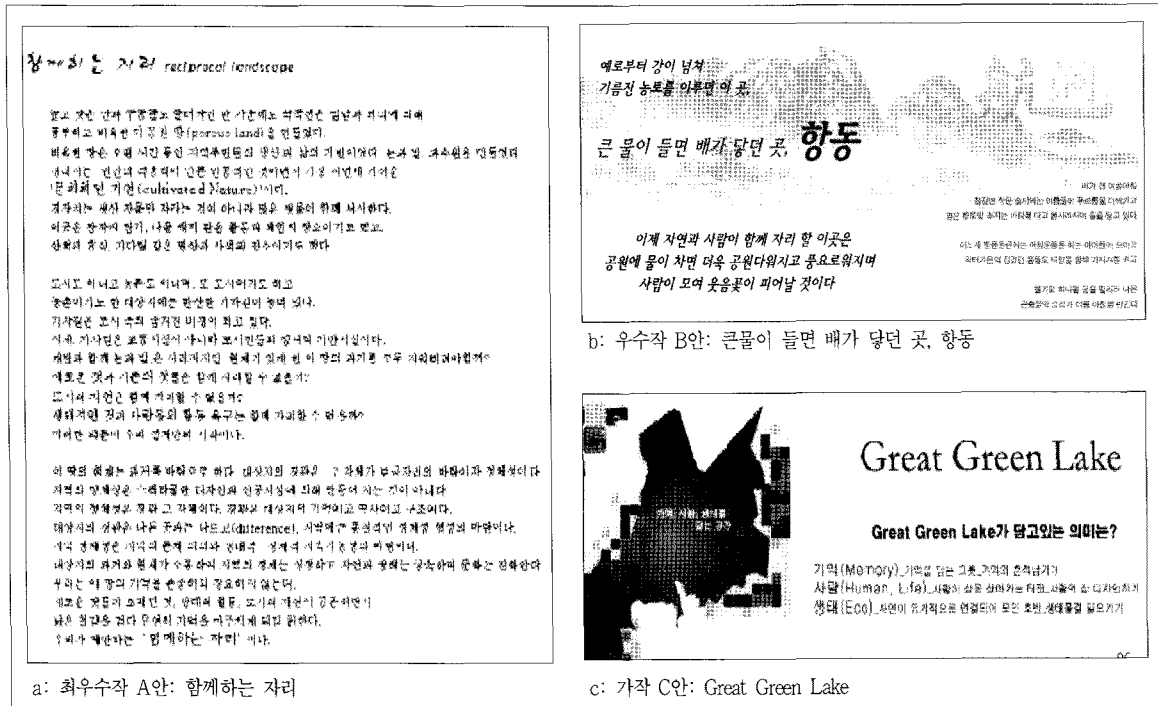


그림 3. 입상안 별 개념의 발전

성체 함으로서, 다른 개념적 대안의 제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2. 프로그램과 골격형성단계의 내용

A안의 '함께 하는 자리 만들기'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다. 즉, 대상지의 경작경관을 경관팔레트(landscape palette)로 재해석하여 유지하고, 주변과 무수한 접점을 갖는 선형대상지는 연결 토지이용과 연계하여(bundling) 프로그래밍하는 반면, 그 사이공간을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동선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또한 전술하였듯 공원 내 상반되게 요구되는 가치를 '함께 하는 자리'라는 전략을 통해 묶고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선형으로 이루어진 환경적 특성과 연결한 입지조건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상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워터 스페이스(water space) 영역에서의 조류서식처, 생태저류지 및 수변공간,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영역 내 카페테리아와 광장갤러리, 완충영역(buffer space) 상의 만남의 광장과 그 특성을 강화하는 야외공원연장, 벽천과 산책로 등의 시설단위, 녹지공간(green space)의 핵심단위로서의 창포원, 경작공간(cultivated space) 내 도시농업공간(urban farm), 경작체험공간 등이 나열된다.

B안 역시 대상지에 잔존하는 논, 밭, 옛길, 기차길 등을 대지의 지문(指紋)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경관으로 삼는다. 이는 스폰지와 같이 생명의 근원인 물을 머금던 땅의 기억을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한 설계전략으로 확장된다. 즉, 대상지의 지형조

작을 통해 가변적 형태로 물을 담음으로서 경관과 이야기를 풍부케 한다. 아울러 등지길, 들레길, 하늘길, 흔적길, 기차길, 논둑길, 굽이길, 둔덕길, 숲길 등을 거론하며, '기억하는 새로운 감성길 만들기' 전략을 전개한다. 이와 더해 주변 천왕산과 범박산의 건강한 자연모듈을 복사하여 다층구조 생태림을 형성하는 '공생하는 숲'에 대한 제안과 건천과 고정·변동수위의 활용하여 '물을 머금은 공원 만들기' 전략을 전개한다. 수변공원의 경우, 규모가 큰 서쪽은 보다 인공적인 모습의 저류지 공원으로, 동측의 소형 저류지는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의 생태습지원으로 테마화 하고 있다. 반면, 대상형의 근린공원1호에서는 변동수위를 이용한 물 차는 연못과 둠벙·둔덕 등에 기반한 녹색습골을 제안하면서 경작공간, 커뮤니티 프라자, 메타세콰이어 숲 등을 연속시키고 있다.

C안의 경우(기존 지형을 최대한 살린)지형의 재구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삶+프로그램, (자유로운 연계를 위한)입체적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채우고 가능성의 공간으로 공간을 비우는)비움과 채움, (주변 환경에 대한)흡수와 확장,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조화되는)유기적 흐름이라는 6가지 전략과 함께 다양한 환경의 길을 제안한다. 즉, 밭빛여울길, 상생의 길, 들레길, 녹색고리길, 하늘로움길, 푸른숲길, 웨이브 로드(wave road), 푸른 언덕길, 초록터널길, 레인보우 레일로드(rainbow railroad) 등이 그것이다(그림 4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프로그램과 골격구조의 내용은 다음의 측면을 드러낸다. 즉, 부분적으로 차별화된 설계전략으로 공간 및 시설명칭은 표 3의 도입프로그램 항목에서 보이듯 천차만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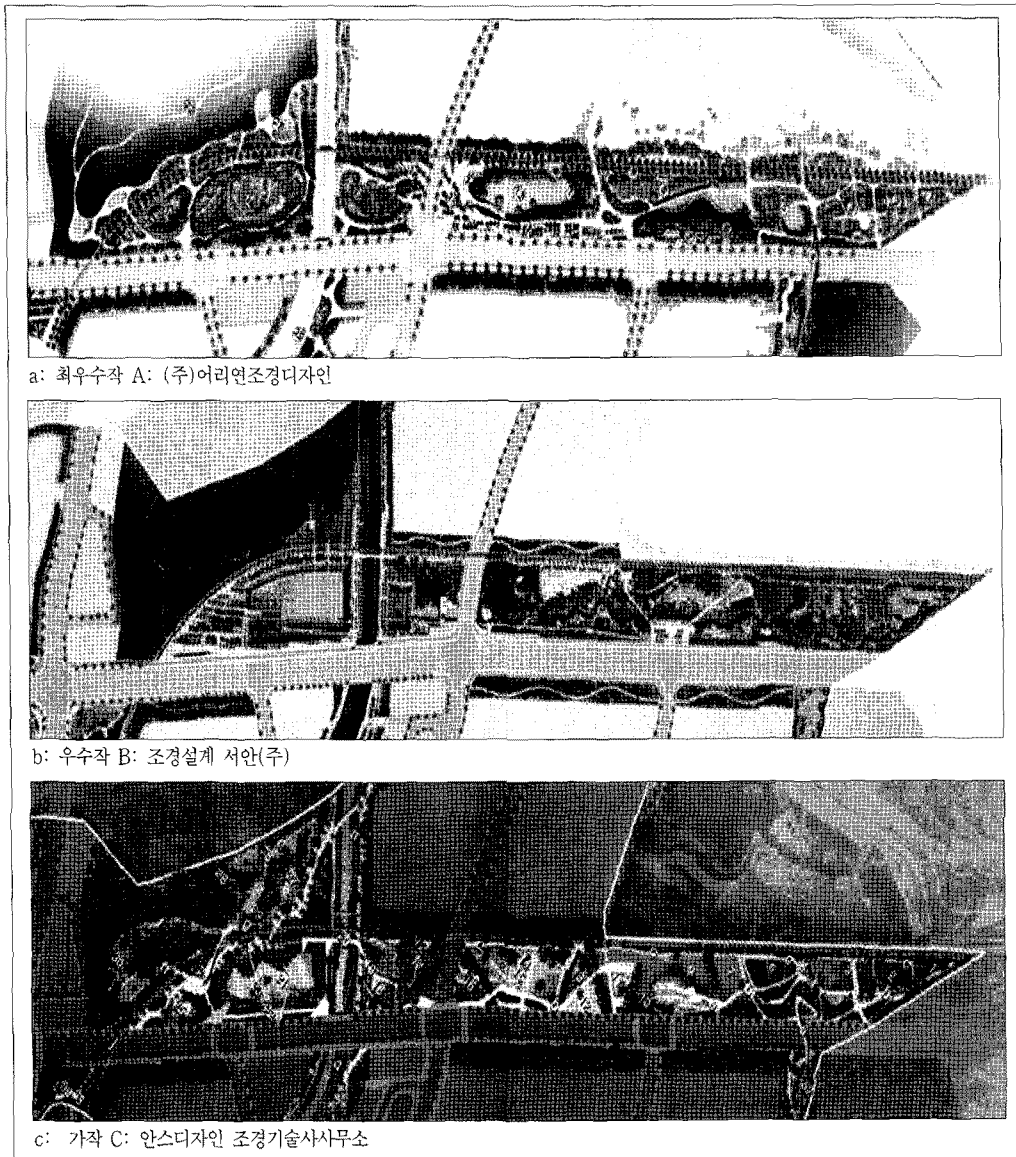


그림 4. 중점계획대상 부분의 계획평면 비교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실제적 환경양식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 내용구성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도면의 좌측(서)에서 우측(동)방향으로 원형의 자연을 보존하며 산지형의 최소 활동을 도입하는 공간 - 생태적 환경을 주제로 문화적 체험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공간 - 넓게 열린 공간을 확보하며 복합적 근린활동을 수용하는 공간 - 잔존하는 경작지를 이용하는 도시농업의 공간 등이 공통적으로 연속되는 것이다 (그림 4 참조). 이렇듯 선행 현상설계지침에 의해 설계의 구조적 틀이 결정되어 대안적 내용 제시가 어려운 공모안 스스로는 변별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내세운다. 즉, 지침에 의해 차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계획안으로 인해, 설계내용과 의미를 필요 이상으로 과잉시키는 네이밍(naming) 전략을 동원하는 것이다(표 3 참조). 특히 길을 강조하는 설계경향은 녹색환경을 지

향하는 오늘날의 여가행태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읽혀진다.

한편, 산지형 근린공원에서 발견되는 환경보전과 최소개발 지향의 설계태도(그림 5 참조)는 b1, c1-2, c2-1, c2-3 등의 지침과, 생태환경에 치중하며 문화활동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수변공원의 설계전략은 b6, b7, c1-3, c1-4 등의 지침과, 대형 잔디밭을 유지하며 경작지를 활용하는 평지형 근린공원의 설계경향은 c1-4, c1-5 등의 지침과 각각 연결되고 있다. 아울러 실제 현행 규정범위 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훼손지 복구방식³⁾에 있어서도 기존 경작지의 유지, 다층 식재방식 도입, 생태적 건천수로의 활용 등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측면은 관련 훼손지 복구지침(c3)이 편협하게 규정된 것과 크게 관련되어 보인다.



그림 5. 기존의 농지를 이해하는 공통적 태도표현

3. 세부공간계획단계의 내용

1) 관리사무소

현상설계지침 상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안별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토록 허용되어 있다. 이에 세 안의 설정위치는 각기 상이하나, 문화적 거점공간의 역할을 겸하며 주변과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즉, A안의 경우, 공원녹지의 중심부인 간선가로 교차점 부근 중 건물옥상 및 데크가 주변 철길과 동일레벨로 형성 가능한 지점에 고려하여 접근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문화갤러리로 명명된 B안의 경우, 수변공원 2호의 생태연못 근처에 입지시켜 교육적 효과를 겨냥하면서 스카이트랙과 입체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반면, C안에서는 공원녹지 구성 상 서쪽으로 다소 치우친 수변공원1호 내에 입지 하면서 주변의 산지형 근린공원3호와 연계되는 상황이다(그림 6 참조). 이러한 입지적 개별성은 당연히도 관리사무소 입지의 융통성을 부여한 규정(b8)과 결부되는 반면, 기능 복합화와 입체적 활용의 특징은 연계이용 및 접근성 증진(a3-2), 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계획(b7) 등과 직결되는 사항을 보여준다. 이처럼 거점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유사하나 위치가 상이한 관리사무소의 입지적 적정성은 설계안의 내용적 특징을 분별하는 중요요소라 할 수 있는 바, 선택적 지침의 보강 필요성을 보여준다.

2) 연결교량

연결교량 역시 b9의 지침내용을 통해 공사비 범위 내 임의의 장소에 설정되도록 한바, 안별 도입위치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A와 C안의 경우, 공원 전면도로인 계수대로에 의해 단절된 외곽 쪽 녹지체계와 연결성 강화에 역점을 둔다(그림 6 참조). 이러한 점은 훼손복구 대상지인 대상형 공원과 광역적 공원녹지체계와의 연계성을 적극 감안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 B안의 경우, 외곽방향의 광역적 연결성보다 중심녹지축 내부의 연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남북방향의 단지내도로에 의해 분절된 수변공원 2호와 근린공원 1호와의 활동성 강화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변화성은 앞선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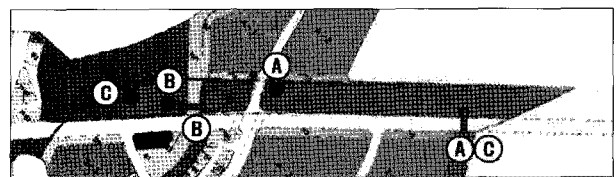


그림 6. 개방적 지침에 의해 변별성이 확보되고 있는 주요 시설의 위치
범례: — 연결교량, ● 관리사무소(문화시설)

사무소의 경우처럼 설계가의 중요한 판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선택적 지침의 강조 필요성을 드러내어준다.

3) 기타

관련된 지침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안별로 개성적인 내용 역시 발견된다. 설계계획서를 기준으로 B안에서는 기차길을 패터화 하여 휴게·전시 테마공간화한 레일 가든(rail garden)이 특히 주목된다. 이에 반해 A와 C안 공히 이벤트 및 이용관리운영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C안은 태양열, 바람, 동력을 활용한 에너지특화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본 사례에서만 특별히 선보인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개성적인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그림 7 참조). 즉, 이러한 점은 현상설계지침이 필요 이상으로 규격화, 양식화될 필요가 없음을 잘 드러내어준다.

4. 입상안의 내용구성과 지침과의 관련성

이상 지침의 단계와 연관되는 출력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특히 표의 말미에서 세 개의 안 전부에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과 두 개 안이 해당되는 부분 공통적 특징, 그리고 모든 안에서 차별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유형을 정리하는 한편, 이들을 가능케 한 지침의 주요 항목을 괄호 내에 표기함으로써 지침과 설계안의 관계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표 3. 현상설계 출력작의 내용구성

구분	A: 최우수작	B: 우수작	C:佳作	설계안과 지침의 관계성	
원론 및 개념화 단계	대상지 이해	도시 가상자리에서 문화화된 자연이 접근 용이하게 선형으로 펼쳐진 환경	과거 큰물이 들면 배가 닿던 곳	- 과거 배가 들던 장소 -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수용해야 할 곳	● 물에의 관심: 다공질의 땅, 스폰지, 초록호수 등(a2-2, b4, c3-1) ● 기억의 대상으로 경작지 인식(b1, b5, c1-2)
	설계목표, 전략	함께 하는 자리: 상충될 수 있는 개념의 수용	녹색습골: 지리, 지형, 지명적 특질 재현	조목호수: 자연환경의 보존, 주변과 연계, 기억의 유지	● 생태환경을 우선하면서 상충적 기능 수(a2-1, b2, c1-2, c3) ◎ 지명의 상징적 재현 측면(b5, b6)
프로그램과 골격형성 단계 (서→동 방향 프로그램 배분)	근린공원 3호(산지형)	- 생명의 자리(이끼정원, 굽이길)	- 청풍원(청풍언덕, 사색원, 대나무숲, 피크닉장)	푸른마루, 옛골연못, 포레스트힐, 술향기원, 다랭이화원	● 환경보전, 최소개발지향(b1, c1-2, c2-1, c2-3)
	수변공원 1호(평지형, 대형)	- 가운데자리(쇠백로터, 두꺼비터, 관찰데크)	- 저류지 공원(누리마당, 철길습지, 옥새바람길, 역새바람들판, 캐스케이드, 워터가든, 갤러리, 수질정화원, 다목적 필드)	- 물빛생태원(수생태관찰원, 관찰데크, 플로팅아일랜드, 관리사무실)	● 생태환경에 치중하며 문화적 활동측면 고려(b6, b7, c1-3, c1-4, c1-5)
	수변공원 2호(평지형, 소형)	- 가운데자리(하나광장, 왜가리터)	- 생태습지원(저류지 생태원, 야외무대, 수변스탠드, 향동생태지, 동지길, 이벤트가든, 관리사무소, 스카이브릿지, 문화갤러리)	- 어울림광장(가족마당, 로터스가든, 크로스데크, 벤딩브릿지)	
	근린공원 1호(평지, 대상형)	- 그린자리(하나광장, 관리사무소, 레일파크, 함께 하는 자리, 잔디스탠드, 잔디생태수로, 경사지 앓음벽, 복원초지, 랜드마크 벽천, 성장하는 숲, 생태체험원, 보행브릿지, 경작지 및 창포원, 경작지 체험원, 물억새정원)	- 향동들판(햇살언덕, 물 차는 연못, 우물쉼터, 울림숲, 다목적 잔디마당, 아리숲, 둠벙, 이룸광장, 늘품숲, 에움길, 커뮤니티 프라자, 메타세이어 숲, 시그널 프라자, 물빛광장, 녹향쉼터, 어반팜, 들레길, 마루길, 샘, 묵는생태원 두레숲, 논둑길, 너레마당, 레일가든, 기억의 숲)	- 건강마당(계류, 건강마당, 만남의 들) - 기억의 터(추억의 뜰, 상생광장, 너른들판, 바람의 언덕, 정화습지원, 야생초화원, 조목마당) - 생산의 뜰(과수원, 주말농장, 추수들녘, 둠벙, 에코브릿지, 황금들녘)	● 네이밍에 의한 의미과잉(b5, b6, b7, c1-4, c1-5) ● 다양한 길의 확보(a3-2, b6, b7, c1-3, c1-5) ● 대형 잔디밭 유지, 경작지 활용(c1-4, c1-5)
훼손지 복구	- 거점으로서의 저류지와 기존산림, 수로와 돌병에 의한 연결, 기존림과 훼손지 사이의 덧대기 전략	소하천의 기능유지, 자연성이 높은 식생구조 복원, 비오톱 형성 등	지형에 대한 기억 유지, 그린·블루 네트워크, 지속가능한 생태 네트워크 방안 천명	● 다층 숲(c2-3, c2-3, c3-2, c3-4) ● 건천수로 연계(a2-2, c3-1)	
세부공간 계획 단계	관리 사무소	- 근린1호공원 내 위치	- 수변2호공원 내 위치	- 수변1호공원 내 위치	○ 위치 상이(b8) ● 문화적 시설 겸용(c1-4, c1-5) ● 입체적 연결성 확보(c1-3, c1-5)
	연결교량	- 근린공원 1호와 외곽녹지의 연결(외부적 관점)	- 수변공원 2호와 근린공원 1호의 연결(내부적 관점)	- 근린공원 1호와 외곽녹지의 연결(외부적 관점)	◎ 입지위치 및 연계 목표환경 다소 상이(b9)
	기타 특이사항	- 이벤트 등 관리운영 프로그램 제시 등	- 기차길 환경을 패턴화 하여 휴게·전시 테마공간화한 레일가든	- 태양열, 바람, 행동에 의한 동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특화시설 - 공원이용관리프로그램 제시 등	○ 기타 제안 상이(-)

자료: (주)어리연 조경디자인, 2010: 조경설계 서안(주), 2010: 안스디자인 조경기술사사무소, 2010의 설계계획서의 내용취합. 필자제작성
 범례: ● 공통적 특징 ◎ 부분 공통적 특징 ○ 개별적 특징



그림 7. 개방적 지침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차별적 태도표현

IV. 결론 및 제언

특정 현상설계사업의 행정적 오류를 지적하거나 응모안의 질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본 연구를 시도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특성상 행동에서 추진되어온 큰 방향에는 대과(大過)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본 사례연구과정에서 전통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재현하고자 했던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적 특성과 보행권을 중시하는 뉴 어바니즘(new urbanism)적 사고, 영국의 전원도시운동과 같이 농촌과 도시의 장점을 결합코자한 러바리즘(rurbanism)의 태도, 공공환경을 도시의 기반시설로 이해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적 태도, 오늘날의 화두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설계전략, 설계대상지를 기억의 양피지로서 이해하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적 관점 등이 다양한 국면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전체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공모지침과 이에 부응한 출품작이 과거의 성과로부터 크게 탈피하여 진전된 점을 보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다. 즉, 행동 이전에 추진되었으며, 대상지의 맥락과 환경여건 그리고 공원녹지체계의 양상과 구성이 크게 달랐던 서울의 세곡과 내곡, 강남 보금자리주택의 조경현상설계에서 전개되었던 관행과 태도가 거의 일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설계지침과 응모안의 관계를 내용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응모안 별로 공통적 특징이 다수 발견되는 반면, 개별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드러난다. 이러한 측면은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안을 모색코자 하는 현상설계의 취지가 일정부분 구조적으로 저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원론 및 개념화 단계지침의 교조적 특성, 지침위계 및 내용구성, 비합리성 등은 설계안을 전체적으로 획일화할 뿐만 아니라 의미과잉을 야기함으로써, 동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설계의 출품작에서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을 드러낸다. 반면, 비교적 자유롭게 개방된 세부공간 단계의 지침을 통해 독특한 아이디어가 드러나고 변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었다.

이상에서 드러난 연구결과는 현상설계의 발주이전단계에서 대상지의 여건과 환경특성, 그리고 요구되는 목표 등을 보다 면밀하게 감안하여 별도의 체계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즉지적 환경과 설계적 목표를 감안한 지침은 당연히 응모안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조장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의 내용이 동시대의 조경현상설계상황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관심과 후속연구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주 1. 연역적 방식으로 현상설계안을 분석한 연구범주로는 '재현' 개념에 기반한 조정진과 김정호(2001),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의 김아연 등(2006)과 강연주 등(2008)을 꼽을 수 있다. 반면, 특정 환경에 대한 개념과 전략을 작품별로 고찰함으로써 여기에 나타나는 공통된 경향이나 새로운 흐름을 귀납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들도 있어왔다. Baljon(1992)에 의해 행해진 라빌레트 공원의 설계공모분석, 여의도공원을 다룬 김수연(2000), 다운스뷰파크를 주목한 배정환(2002), 서울숲을 대상으로 한 이상민과 조정승(2004),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개념공모 출품작을 한국과 서양의 설계개념을 비교 분석한 박근현과 배정환(2008) 등이 후자의 연구범주를 이룬다. 한편, 이 방식이 시계열적, 공간적으로 확장되면 위재송(2003)과 같이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유사환경의 변모 경향을 파악하기도 한다.
- 주 2. 훼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에 주택, 상가, 공장 등 건축물과 축사, 기타 건축물 및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지역으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해제대상지 면적의 10~20%에 대한 훼손지복구계획을 수립해 원상복구하거나 공원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처리규정(제정 2009. 9, 개정 2010. 5)에 규정되어 있다.
- 주 3. 국토해양부(2010)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처리규정 중 9조 복구원칙은 보전 및 복원을 통해 녹지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민의 여가 및 복지·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 10조는 복구유형을 원형복구와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인용문헌

1. 강연주, 김정화, 배정환(2008)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를 통해본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설계전략. 한국조경학회지 36(5): 42-54.
2. 국토해양부(2010)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3. 김수연(2000) 조경설계 작품분석에 관한 연구: 여의도공원 현상설계 공모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아연, 고미진, 오형석(2006)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관점에서 본 춘천G5 국제설계경기 출품작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4(3): 120-138.
5. 박근현, 배정환(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에 나타난 대형공원의 설계전략. 한국조경학회지 36(5): 13-25.
6. 배정환(2002)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본 조경설계의 새로운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29(6): 62-71.
7. (주)어리연 조경디자인(2010. 08. 26) 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 설계계획서.
8. 조경설계 서안(주)(2010. 08. 26) 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 설계계획서.
9. 안스디자인 조경기술사사무소(2010. 08. 26) 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 설계계획서.
10. 서울특별시 SH공사 기술본부 조경설계팀(2010) 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지침서.
11. 위재송(2003) 한국현대공원 설계경향에 관한 연구: 최근 10년간 공원 현상설계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상민, 조정승(2004)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1(6): 15-27.
13. 조정진, 김정호(2001) 조경설계에 있어서 전통조경의 현대적 재현의 특성: 파리 서울공원 현상공모 출품작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6(5): 84-95.
14. 최인호, 진미윤, 김주영(2010) 보금자리주택공급에 대한 현안과제와 향후 발전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342): 3-13.
15. Baljon, L(1992) Designing Parks, Amsterdam Architectura & Netura Press.

원 고 접 수 일: 2011년 2월 24일
 심 사 일: 2011년 4월 15일(1차)
 2011년 4월 29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1년 4월 29일
 4 인 의 명 심 사 필